

## [ 정보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회도서관의 역할 ]

지식정보사회에서 의회도서관은 정보자체의 공급원이면서 국가정책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정보자원을 가장 효과적이고도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망의 구축이야말로 선진의회로 진입하는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국회 입법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지식과 정보는 물론, 문화에 대한 욕구증대를 수용할 수 있는 국회도서관의 대담한 발전계획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의 직무는 크게 국회의 입법활동지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그리고 대국민 도서관봉사제공의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국회도서관법 제2조 참조)

국회도서관의 첫 번째 직무인 입법활동지원이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입법부의 전문성 부족과 행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으로 인하여 의회가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의 정보부족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생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입법부의 역할인 대정부 견제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의회개혁은 일반적으로 절차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의제에서 출발하지만, 문제의식이 심화되면 정보의 수요와 공급시스템의 질적인 발전으로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신설 및 국회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대한 모색 등으로 의회개혁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회 지원조직의 신설이나 조직개편이라는 형식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가 필요한 정보수요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이라 할 것이다.(박영희, "입법과정에서의 정보이용과 수요예측 - 16대 및 17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2-6면 참조)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국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확하고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국회 내에서의 정보허브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즉, 향후 입법지원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회 내 각종 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그리고 신설예정인 국회입법조사

처와 긴밀히 연계하여 의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국회도서관의 핵심 임무 중 두 번째는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이다. 국회도서관이 지향하는 전자도서관이란 인간친화적인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말한다. 이는 국회도서관의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고객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문·동영상·토킹 북 등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의 이념을 구현한 도서관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전자도서관시스템, 입법지식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인터넷 자원관리시스템 및 자체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과 결합한 도서관 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진보는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화 인프라와 첨단정보시설 및 휴먼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인간친화적인 전자도서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은 입법지원이라는 특수도서관의 성격과 함께 국회의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공중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도서관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국회도서관법 제2조 제3항 참조)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제분야의 국가지식을 수집하는 장서개발정

책을 수립하고, 정보생산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인터넷 및 각종 미디어 정보자원의 수집 및 관리의 표준화를 선도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의 정보매체를 통한 국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도서관은 사회과학 중심의 장서수집으로 인하여 다양화·전문화되는 입법 및 학문추세에 대한 미약한 대처, 인쇄형태를 대체하는 전자저작물의 확대에 따른 체계적 수집 및 대응 미흡, 그리고 의회도서관에 걸맞는 공간의 부족 등으로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위상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해지는 입법환경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향후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분야 등 모든 주제분야로 자료를 확충해야 하며, 정보자원의 이용도 인터넷자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열린국회 속에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제공에도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가도서관으로서의 국회도서관은 세계적인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의 지식정보와 문화를 아우르는 “동북아의 허브도서관”으로 거듭나서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심에 자리해야 할 것이다. 



문 용 주

국회도서관장  
hopemyj2@hanmail.net